



# 유리산업의 현황과 시장개방에의 대응 방안

김영길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목차

- 1. 머리말
- 2. 유리산업의 현황 및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 2-1. 판유리
  - 2-2. 식기유리
  - 2-3. 기타
- 3. 제빙업계의 현황 및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 4. 시장개방에 따른 유리산업의 대응방안

### 1. 머리말

**세계** 117개국이 모여 7년간을 끌어왔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지난해 12월 15일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UR협상 결과가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이제 전세계는 무역전쟁,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됨에 따라 국내 유리산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발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NAFTA, EC 등의 본격 활동으로 세계무역은 개방화·블럭화의 큰 흐름 속에서 국내 유리산업은 내부적으로는 고임금과 인력난, 기술개발부진 등 오랫동안의 난제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안팎으로 사면초가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전회위복의 계기로 삼아 현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이에 우리나라 유리산업의 현실과 시장개방후

유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개괄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2. 유리산업의 현황 및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국내 유리산업은 판유리, 병유리, 이화학산업용유리, 유리식기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제조업체 수를 보면 약 70개 업체(표1 참조)로 종업원은 18,0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살펴보고 특히 포장산업과 관련된 유리병업체를 좀더 세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 2-1. 판유리

국내 판유리 산업은 [표2]에서와 같이 1992년 18,951천 상자가 생산되어 1990년에 비해 약 5,000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수요 역시 약 5,000상자 정도가 증가하였다. 수출은 평균 500천상자 정도이며 수입은 매년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유리 생산설비 보유중 약 70% 이상이 최첨단 제조공법인 FLOAT 공법으로 제조되고 있어 선진국과 동일한 기술 및 품질수준을 이루고 있

다.

시장 개방에 있어 업종 전체로 보았을 때 특별히 유리한 면은 보이지 않으나 자동차 수출 증가로 인한 안전유리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판유리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UR의 본격 가동 시점에서는 후발개도국(태국, 필리핀, 중국 등)의 저가, 저급제품의 내수시장 잠식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수입 판유리 조정 관세 범위를 피해 수입상들이 판유리를 다량 수입했던 점을 들어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판유리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및 중국 등에 합작 투자형태로 진출, 기술 및 자금을 바탕으로 국내 수요를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금강, 한국유리의 증설이 확실시 돼 생산라인의 안정 가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안전유리 등 판유리 가공분야는 제품의 특성상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판 유리-수출 1.7%, 수입 11.7%
- 안전유리-수출 0.3%, 수입 2.5%
- 강화유리-수출 0.1%, 수입 1.7%

### 2-2. 유리 식기

유리식기 제품의 소비 성향을 살펴보면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및 생활양식의 서구화 등으로 중저가 유리식기 제품에서 고급 유리식기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점진적으로 크리스탈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식기 수급 동향은 [표3]에서와

같이 91년 6만1천톤, 92년 6만4천톤으로 매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자산규모가 큰 자동차병 업체에서 유리식기분야로 신규 참여가 늘고 있어 93년의 생산량은 92년에 비해 약 5% 증가한 6만8천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94년도에도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유리식기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이 91년 1만1천1백40톤, 92년 1만1천6백56톤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수입은 91년 1만1천톤, 92년 1만톤으로 비슷한 물량이 수출입되고 있다.

국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91년 전체수입량의 47% 정도를 차지한 일본

[표 1] 국내 유리제조업체수 및 생산량

구 분	업체수	'92 생산량	종업원수 (명)
판유리 (1차 제품)	2	18,151천상자	3,429
TV브라운관 유리	2	51,493천개	5,742
유리기초 제품 및 산업용 유리	19	53,926톤	987
병유리	11	763,804톤	5,410
	9	17,420톤	1,397
유리식기	26	64,525톤	1,742
계	69	-	18,707

[표 2] 판유리 수급동향

구 분		'90	'91	'92	
수 요	내수 (천상자)	15,238	19,080	20,521	
	수 출	천상자	550	606	401
		천볼	15,086	16,287	17,255
	계 (천상자)	15,788	19,683	20,910	
공 급	생산 (천상자)	14,035	16,352	18,151	
	수 입	천상자	3,260	3,760	1,950
		천볼	70,780	80,149	53,112
	계(천상자)	17,295	20,101	20,360	

[표 3] 유리식기 수급 및 수출입 동향

구 분	'91	'92	'93.1-9	
생산량(톤)	61,386	64,525	68,000	
판매량(톤)	58,909	61,447	65,000	
수 출	톤	11,140	11,655	9,847
	천볼	31,780	33,378	35,124
수 입	톤	11,480	10,043	9,156
	천볼	35,538	34,932	34,754



이 수입선 다변화 지역으로 고시된 후 92년에 약 2천톤 정도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저질, 저가의 수입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 국내 생산업체들은 높은 인건비,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동남아의 저가 제품과 가격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은 현행 관세가 50~100% 수준으로 향후 관세 인하 시에는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최고 38%(유리식기)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 인하폭 및 시장 확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유리식기는 수입품(프랑스, 인도네시아, 미국)이 국내 시장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관세 추가 인하 시 국내시장 잠식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디자인 개발지원 및 병역혜택 등을 통한 인력지원이 요망되며, 업계 역시 연구 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 2-3. 기타

이화학, 산업용 유리는 기술수준이 낮은 동남아 등 후발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업체들의 기술수준이 초기 단계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시장잠식으로 관련업계에 많은 피해가 예측된다. 따라서 기술 집약적 품목은 국내 시장 개방에 따라 선진국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업계는 가동률 하락 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유리벌브는 미국, EC지역에서의 TV브라운관 품목의 덤핑 제소가 다소 완화될 것이므로 이 지역으로의 수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타 국가에서도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가격 경쟁시대에서 품질 경쟁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일본 등의 고품질의 제품 수입 증가로 국내업계는 국내 시장에서의 고전이 예상된다. 또한 한옥초자를 비롯한 소규모 업체를 통해 일본측의 적극 공략이 예상된다.

향후 UR협상 타결로 TV 및 브라운관 수출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유리 벌브의 수요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형 규격의 유리벌브에 대해서는 국내의 기술이 미흡한 관계로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 벌브의 수출입 비중을 알아보면 수출 5.4%(로컬수출포함 94.4%), 수입 11.8%로 나타났다.

유리 단섬유는 뛰어난 건축 자재로서 UR의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리 단섬유는 부피가 상당히 큰 제품으로서 국가간 경쟁이 어려워 불리한 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 장섬유는 최근 럭키 오웬스코닝, 한국 베네로텍스 등이 유리 장섬유 생산에 참여했고, 현재까지 많

은 외국에서의 반 덤핑 제소 등을 극복해온 상태로서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2~3년 후에는 제품 및 가격 경쟁력이 외국업체들과 대등한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품목은 UR에 상응하는 국가간 거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보다는 수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3. 제병 업계의 현황 및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제병업계를 살펴보면 크게 자동식 생산시설을 갖춘 자동제병업체와 재래식 용융방법에 의해 수동으로 생산하는 수동제병업체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제병 11개사의 생산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주류, 음료, 제약사 등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수동제병 업체들은 자산 및 규모가 자동제병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들로서 9개 업체가 국내 전체 시장의 약 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유리병은 연간 약 75만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 수급물량을 전량 소화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표 4 참조]

87년 이후 병유리 시장은 국내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음료업계의 신상품 개발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를

(표4) 국내 유리병 수급동향

구분	'90	'91	'92	'93
생산능력(톤/일)	2,376	2,926	3,279	3,019
생산량(톤)	696,971	787,753	763,804	687,437
판매량(톤)	699,774	756,491	729,661	707,422

하였다. 이와같은 수요증가에 따른 병유리 업계의 공급 부족분을 정부에서는 90년도에 관세 13%를 5% 할당 관세 적용으로 국내 공급부족분을 수입량으로 대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병유리 업계에서도 경쟁적으로 많은 신증설을 하기 시작하여 89년말 국내 총 1일 용해로 톤수가 2,066톤에서 92년 3,279톤으로 무려 1천200톤 이상의 신증설을 하였으나 92년 하반기부터 국내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억제 분위기로 업계는 많은 신증설에 따른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편리성에 따라 가볍고 편한 1회용 종이팩, PET, 캔 등의 대체용기를 선호하고 있어 유리병의 수요가 줄어드는 등 2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환경보전과 지구자원을 보존하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고, 1회용 용기의 폐기처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선진 각국에서는 1회용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 용기(Returnable bottle), 즉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유리병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리우 환경선언 이후 정부 및 국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정부에서도 효율적인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환경에 대해 우수한 유리병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유리병은 전형적인 내수품목으로 중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운송비 부담이 크고 운송시의 높은 파손 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출 비중이 매우 낮다.

[표5]에서와 같이 92년도 유리병 수출은 6천톤 정도로 89년에 비해 약 50%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89년 이후 국내 유리병 수요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부족으로 병유리 제조업 자체에서 생산능력 부족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많은 수입을 하였으나 92년 이후 업계의 신증설로 91년에 비해 92년 수입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및 태국등지에서 소량 수입되고 있다.

#### 4. 시장개방에 따른 유리산업의 대응방안

정부는 UR에 대비해 공업기술 개발사업기금, 공업발전기금 등을 통하여 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집중 지원해 왔다. 또한 자동화 시설자금 및 세계지원, 산업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원 정책을 확대, 보강해나가는 동시에 업계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생산외적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와

대 고객 서비스 강화로 선진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배양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품 고급화를 통해 후발 개도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리산업은 내수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이므로 UR타결로 관세가 일괄적으로 인하되면 선진국의 고급제품 및 후발 개도국의 저급·저가품 유입이 늘어나리라는 것을 업계는 염려하고 있다.

포장산업인 제병 업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병유리는 부피가 크며 수송시 파손율이 높아 운임이 많이 소요되는 내수 위주의 품목이다. 현재는 중국 및 태국 등지에서 소량 수입되고 있으나 품질향상 속도가 빠르고 국내 관세 인하시 저가 수입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의 잠식이 우려된다.

현재는 제병업체가 주류, 음료, 제약회사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판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들 동남아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낮은 인건비, 값싼 원부자재 등으로 생산원가가 낮아 국내 제병업체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국내 유리병 제품은 중국 및 태국들의 저가품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있는 제병업체에서는 개방화 추세에 맞춰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제품의 경량화 및 고강도화를 이루고, 생산라인의 자동화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제품 및 가격경쟁에 있어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표 5] 유리병 수출입 현황

구 분		'89	'90	'91	'92
수출	톤	11,032	8,089	4,889	6,039
	천\$	8,379	6,373	5,052	7,285
수입	톤	2,597	26,465	38,421	14,594
	천\$	5,208	12,091	12,087	7,083